

전남 다문화가구원 5만 시대... “이주여성 적극 지원”

다문화가족 출신 도청 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 추진
통번역 서비스 등 4대 분야 26개 과제 선정, 적극 추진할 방침

전남도가 다문화가구원 5만 시대를 맞아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촘촘한 복지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지역 다문화가정 가구는 1만5666세대로 전국의 3.9%를 차지하며 17개 시·도 중 8번째로 많다.

가구원수는 5만1131명으로, 전국 다문화가구의 4.4%(7위), 전남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여성도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등을 포함해 1만3432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이에 전남도는 다문화 아동·청소년

의 차별 없는 성장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분야 26개 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와 22개 시·군 가족센터는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양성교육과 운영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국적 취득비용 ▲맞춤형 취업 ▲통번역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또 대다수 지원책이 가족센터나 시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출신 전남도청 공무원이 해당 시·군 가족센터 모국 여성담사와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기로 했다.

도는 이를 통해 개인별 상담을 진행,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의·애로사항 수렴 후 다문화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새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수요조사 결과 베트남 37명과 필리핀 6명, 캄보디아 4명, 태국 3명 등 모두 54명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달 중순부터 희망하는 달에 맞춰 현장 상담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통해 결혼 초창기 낮은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



도록 열어주고 안아주는 서비스를 하고, 특히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면서 대한민국에 조기 정착해 행복한 삶을 살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신안군 신의면, 봄바람에 실린 노인들의 행복

신안군 신의면은 지난 11일~12일 2일간 임자도 톨립 흥매화 정원에서 특별한 야외교육과 문화 활동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72명의 어르신이 함께했으며, 노인들의 문화생활 활성화와 봄꽃 감상을 통해 삶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했다.

이날 어르신들은 톨립과 카네이션 동백

꽃길을 따라 산책하며 꽃팔찌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김순석 신의면장은 “봄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봄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안=이명주 기자

담양군, 지역주민 대상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 추진

오는 24일까지 12개 읍면에서 진행, ‘치매 안심 담양’ 만들기 ‘앞장’



담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9일 죽녹원과 관방제림 일원에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시작했다.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는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며 치매 극복을 기원하는 행사로 치매 예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12개 읍면에서 진행한다.

걷기 참여자는 치매 파트너 등록 후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치매 프로그램 활동 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치매 안심 지킴이’ 역할을 하게 된다.

담양=박종영 기자

나주시 보건소, ‘어르신 건강 식생활 교육’

작은복지관 10개소에서 26일까지 운영

나주시 보건소(소장 강동렬)가 작은복지관 어르신 대상으로 ‘어르신 건강 식생활 교육’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은 지난 2일 남산 경로당을 시작으로 26일 다시면 조동 경로당을 끝으로 10개소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나주=송준표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장성 필암서원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하니
산수간나도 절로
이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절로 늙사오리

- 김인후 선생의 '자연가(自然歌)' -

